수 크러멀 목사
노회 총무
시카고 노회

저는 시카고 노회 총무인 수 크러멀입니다. 저는 상회비에 대해 1 ~ 2 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노회의 지도자 몇 사람들과 훈련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명이 "모태 장로교인"인지, 곧 평생 장로교인으로 살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장로교인이 되셨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셨나요?" 저는 그들이 자신들이 속한 특정 교회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가 그 교회에 다녀서요"와 같은 대답 말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장로교의 정치 제도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장로교인이어서 행복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정치 제도는 물론 우리의 신학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규례서의 처음 몇 장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규례서의 모든 "F"장들은(장로교 정치 제도의 기초)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모두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어느 한 사람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으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사무실에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회비는 바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상회비를 교회의 세금이나 회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회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상회비가 1인당 기여금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돈을 모을 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전반에 걸쳐 똑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회비는 진실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교회라는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와 노회가 더 광범위한 교회와 상회비를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격려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를 분별하는 도구로서 상회비를 함께 사용합시다.